

# 김고는 인맥까지 동원... ‘픽스 유’ 수록 대작전

(콜드플레이의 대표곡)

300여 후보곡 중 최종 10곡만 추려 상업영화에 곡 안 주는 콜드플레이 김고는 지인 통해 설득...결국 성사

음악을 타고 사람이 왔다. 정해인·김고는 주연 ‘유열의 음악앨범’이 섬세한 멜로영화의 힘을 증명하고 있다. 한동안 한국영화의 취약 장르로 꼽혀온 멜로의 저력을 다시금 일깨우며 8월29일 개봉한 영화는 누적 65만여 관객을 모아 1일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지나간 10년의 시간 속에서 만남과 잊갈립을 반복한 두 남녀의 운명 같은 사랑이 당시 유행한 노래들과 어우러지면서 관객의 감성을 자극한 결과다.

### ●유열부터 콜드플레이까지

관객의 호감을 이끌어내는 음악과 노래는 극중 이야기의 ‘화자’로 작동한다. 그 애잔한 감성을 극대화하는 노래는 모두 10곡이다. 영화 속 시간적 배경인 1994년부터 2005년 사이 선보인 곡이다. 현존하는 최고의 밴드로 불리는 콜드플레이의 ‘픽스 유’와 아이니의 ‘원스 어폰 어 타임’을 제외한 8곡은 친숙한 한국 가요다. 유열의 ‘처음 사랑’을 비롯해서 신승훈의 ‘오늘 같이 이리 청백이 좋아’, 윤상이 부른 토이의 노래 ‘우리는 어쩌면 만약에’, 핑클의 ‘영원한 사랑’ 등이다. 각 노래는 두 남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정서적으로 뒷받침하는 울림을 안기며 관객의 귀를 간질이고 있다. 이처럼 음악을 주요 장치로 내세운 시



연기자 정해인(오른쪽)·김고는이 주연한 영화 ‘유열의 음악앨범’이 이야기 시작부터 끝까지 흘러나오는 10곡의 명곡에 힘입어 흥행 중이다. 사진제공 | CGV아트하우스

나리오는 실제 가수 겸 DJ 유열이 1994년부터 진행한 KBS 쿨FM ‘유열의 음악앨범’의 대본을 7년 동안 집필한 이숙연 작가가 썼다. 음악에 일가견이 있는 작가의 아이디어가 영화 연출자 정지우 감독의 섬세한 구상과 만나 300여 후보곡을 모으게 했다. 이후 배우와 스태프가 합심해 논의를 거듭한 끝에 최종 10곡을 주렸다.

### ●또 다른 ‘일등공신’, 김고는

그 과정에서 김고는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저작권료가 가장 비쌀 뿐 아니라 한국 영화에서 쓰인 적 없는 콜드플레이의 대

표곡이 영화에 삽입된 것이 대표적이다. 콜드플레이는 독립영화가 아닌 상업영화에 자신들의 곡을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로도 유명하다. 그럼에도 반드시 ‘픽스 유’가 필요했던 제작진은 여러 경로로 의사를 타진하면서 답을 기다려왔다.

기회는 뜻밖에 찾아왔다. 미국에 머물면서 콜드플레이가 참여한 록 페스티벌을 찾은 김고는은 마침 동행한 지인이 그들과 남다른 인연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듣고 도움을 청했다. 즉석에서 영화에 대한 설명과 의도를 전달해 결국 노래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중에 잘 알려진 노래를 배경음악으

로 쓰는 것은 그만큼 ‘높은 저작권료’를 의미하기도 한다. ‘유열의 음악앨범’ 저작권료는 약 6억 원. 한국영화 최고 수준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기존 곡이 삽입된 극장 상영작을 대상으로 상영횟수에 따른 별도의 ‘공연료’(곡당 1350원)를 책정하는 만큼 향후 저작권료는 6억원에서 더 늘어난다.

제작사 무비락의 김재중 대표는 1일 “처음 기획단계에서 저예산으로 해보자는 아이디어도 나왔지만 반드시 그 당시 음악이 필요한 영화인만큼 저작권료를 감안해 제작 규모를 재정보했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 1585억→722억...양현석 주식 자산 ‘반토막’

버닝썬 사건 등 여파 YG 주가 하락 원인 부정적 시선...관련 엔터주들 동반 폭락

연예인 ‘주식부자’들의 주식 자산이 급감한 가운데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이자 최대주주인 양현석은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소속 가수였던 그룹 박명수의 멤버 승리가 연루된 ‘버닝썬 사건’부터 시작해 각종 의혹과 논란에 잇따라 휘말리며 YG엔터테인먼트 주가가 크게 하락한 탓이다.

1일 기업 정보사이트 제벨닷컴에 따르면 8월30일 기준 100억 원어치 이상 주식을 보유한 연예인 ‘주식부자’들은 모두 7명.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 프로듀서와 JYP엔터테인먼트 박진영 대표를 비롯해 양현

석, 연기자이자 풍곡주정공업 이현용 대표이사의 부인 박순애, 키이스트의 대주주였던 배용준, 뮤지컬 배우이자 오프니 합영준 회장 장녀인 함연지, FNC엔터테인먼트 한성호 대표다. 이들의 주식 평가액은 총 4313억 원으로 지난해 말 7158억 원보다 2845억 원(39.7%)이나 떨어졌다.

이 가운데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은 지난해 말 1585억 원에서 722억 원으로 863억 원(54.4%)이나 줄어들었다. YG 주가가 4만 7500원에서 2만1200원으로 55.4% 하락한 때문이다. YG엔터테인먼트는 올해 초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뒤 승리를 포함한 소속

가수들이 잇단 논란과 의혹에 휩싸이면서 곤욕을 치러왔다. 양현석 역시 마약 스캔들 무마 의혹, 국제형 세무조사,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에 시달려왔다.

결국 양현석은 관련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6월 말 YG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현재는 YG 지분 16.1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만 이름을 올리고 있다.

양현석 다음으로는 이수만 회장이 982억 원(42.7%)의 주식 가치가 감소해 현재 1321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SM 주가 역시 올해 들어 43.0% 하락했다. JYP엔터테인먼트 지분은 17.7% 가진 최대주주 박진영도

698억 원(36.7%)이 줄어들어 1204억 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국내 엔터테인먼트업계를 대표해 온 3대 거대 기획사 최대주주들의 주식 자산이 나란히 크게 줄어든 것은 ‘버닝썬 사건’ 이후 관련업계의 부정적인 이슈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와 실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증권가와 연예계는 일본을 각기 자사 콘텐츠의 주요 해외 시장으로 삼아왔지만 최근 한일관계가 악화하면서 향후 불확실성이 제기된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밤샘 조사’ 양현석 추가 소환 가능성

자금 조달 A씨 참고인 조사 예고 미국법인 자금 횡령 혐의도 수사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50)이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밤샘 조사’를 받은 가운데 추가 소환될 가능

성이 제기되고 있다.

8월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첫 소환된 양현석은 오전 9시51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23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 일부 도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환치기’ 수법 등을 동원한 외국인

거러법 위반 및 해외 투자자 성 접대 혐의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경찰 관계자는 “이미 양현석의 출입국 관리 기록과 카지노를 드나든 내용 등 도박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미국에서 양현석에게 도박자금을 조달해준 것으로 알려진 A씨를 조만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정연 기자

## ‘나쁜 녀석들’ 마동석 빈 자리 크다

할리우드 일정으로 국내 활동 불가 시사회·무대인사 등 불참 아쉬움

출연 영화마다 각별한 애정을 쏟아온 마동석이 이번엔 자리를 지킬 수 없게 됐다. 추석 연휴를 앞둔 11일 영화 ‘나쁜 녀

석들:더 무비’(감독 손용호·제작 영화사 비단길)를 내놓지만, 때마침 맞물린 할리우드 일정으로 국내 활동을 잠시 멈춰야 하기 때문이다.

마동석은 현재 할리우드 마블스튜디오의 영화 ‘이터널스’ 일정에 따라 미국과 영국을 분주히 오가고 있다. 3~4년 동안 할리우드 제작진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



마동석

지만 때마다 한국영화 일정이 빠듯해 기회를 잡지 못한 그는 기다림 끝에 마블의 새 시리즈 주연으로 화려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한동안 ‘이터널스’에 집중해야하는 만큼 당장 ‘나쁜 녀석들’ 관련 일정에는 함께 할 수 없다. 3일 첫 시사회는 물론 이후 작품을 관객에 소개하는 각종 인터뷰, 무대인사에 동참하지

못한다. 추석에 격돌하는 경쟁작 ‘힘을 내요, 미스터 리’의 차승원과 ‘타짜:원 아이드 잭’의 박정민이 작품 홍보에 사활을 건 상황과 비교하면 마동석의 빈자리가 크게 다가온다.

‘나쁜 녀석들’은 흥악법을 잡기 위한 경찰과 범죄자의 공조를 그렸다. 2014년 마동석이 주연한 OCN 드라마의 영화 버전으로, 최근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드라마의 영화화’ 시도의 출발을 알리는 작품이다. 이해리 기자

### 연예뉴스 HOT 4

유재석·조세호, 김철민 응원 나섰다



김철민

폐암 투병 중인 개그맨 김철민을 위해 유재석과 조세호가 나섰다. 이들은 8월31일 남창희와 함께 김철민이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아 그를 위로하며 적지 않은 금액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이들은 김철민과 특별한 친분은 없지만 동료로서 아픔을 함께했다. 앞서 8월24일에는 가수 설윤도, 김혜영, 진시몬 등이 김철민을 위한 후원 콘서트도 열었다. 김철민은 1994년 MBC 5기 공채 개그맨 출신이다.

‘성폭행 혐의’ 강지환, 오늘 첫 재판



강지환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기자 강지환에 대한 첫 재판이 2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날 오후 1시 50분 강지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제1회사부 심리로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강지환의 공소사실 및 국민참여재판 의사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강지환은 이를 앞두고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4명을 선임했다. 강지환은 7월9일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다.

에프엑스 멤버, SM과 전속계약 종료



에프엑스 멤버

그룹 에프엑스의 멤버가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끝났음을 알렸다. 멤버는 1일 오전 SNS에 자필 편지를 올리고 이날부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멤버는 2009년 5인조 그룹 에프엑스의 멤버로 데뷔했다. 이날 멤버의 계약 만료로 에프엑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안재모 ‘우키시마호’ 내레이션 참여



안재모

연기자 안재모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아픔을 다룬 영화에 내레이터로 참여했다. 안재모는 19일 개봉하는 영화 ‘우키시마호’의 내레이션을 맡았다. 영화는 해방 직후 강제징용 조선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던 군함이 폭침돼 1만여 승선자 중 8000여 명이 희생된 사건을 담는다. 안재모는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역사와 진실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데 작게나마 힘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